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 김사무엘 선교사 / 2001. 12. 28 -

제가 섬기는 교회의 주변에는 서울에서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상사 직원들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서울에서 장기간 가족들과 함께 거주해야 하는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어서 어떤 사람은 그 숫자가 2000여명이 된다고 합니다.

10여 년 전부터 이들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우선 교회 시설을 개방하여 그들의 음악회나 모임 등을 위하여 제공했고, 토요일 오후에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한글학교, 음악학교 그리고 다른 과외 활동 등을 해왔습니다. 금년 초부터 주부들을 위한 한글학교를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에 가졌고, 가을 학기에는 자녀양육에 관한 특별 세미나를 열 번에 걸쳐 가졌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번 크리스마스 때에 그들을 초청하여 그 동안 가르쳐 왔던 토요학교의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저녁 디너파티를 겸한 모임에 부모들을 초청했는데 어린 아이 어른들을 합하여 28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순수한 일본인들이 280여명이나 교회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사실은 주최한 저희들도 놀랐고 또 참석한 모든 사람들도 매우 신선한 충격을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 모임을 보면서 교회가 지역사회에 참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직임을 재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 교계에서 선교에 관한 깊이 있는 자료와 도전을 주고 있는 마이클 그린 박사는 우리들 교회의 원형인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얼마나 변질되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합니다.

우선 초대교회는 전도가 교회의 모든 활동의 최우선이었습니다.

전도를 위하여 존재하고, 조직하고, 재정이 쓰여졌고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의 특징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깊은 연민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매우 깊었습니다.

셋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열려 있었고 또 매우 민감했습니다.

넷째로 지나치게 성직자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성직자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헌신자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다섯째로 건물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각 가정이 전도의 중심이었고 모든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증거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섯째로 복음은 모든 사람들의 화제가 되었고 전 지역 사회가 단번에 개종되는 일들이 빈번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각 개인들의 변화된 삶과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된 공동체의 특성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몇 해 전에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선교 중심이요, 선교가 교회의 생명을 공급하는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생명력이 넘치는 신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일본 현지에 있는 교회들은 30명이 넘으면 자리 잡은 교회요, 독립할 수 있는 교회로 간수합니다.

서울에서 280명이나 되는 일본인들이 원해서 참석할 수 있는 모임을 갖고 나서, 저와 또 이모임을 섬기는 모든 이들은 용기를 얻었고 내년에는 더 좋은 내용과 열심을 가지고 서울에 있는 일본인들을 섬길 것을 결심했습니다.

이와 같은 선교의 일선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